

# 육신의 눈을 잃고 마음의 눈을 얻다

## ⑧ 천안제일(天眼第一) 아나울

〈상〉최상의 발심

육안을 잃고 천안을 얻은 제자가 있다. 그는 평생 잠들지 않았다. 부처님과 의 약속이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지 않았던 그는 끝내 시력을 잃었지만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 부처님은 그를 '천안제일'이라 불렀다. 진정한 발심과 정진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온 몸으로 보여준 아나울 존자의 이야기다.

부처님의 교단은 인도 제일의 강대국인 마가다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국왕 밤비사라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많은 바라문의 상수들과 그 밖의 많은 부호들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거나 출가하기에 이른다. 부처님의 성도와 교단의 성장은 부처님의 고향 가비라국까지 전해지기 시작한다. 가비라국의 국왕이며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부처님의 소식을 듣고 기원정사로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이 고향을 찾는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왕실과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탄하며, 불법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 출가

부처님이 고향에 머문 지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에서의 교화를 마친 부처님은 다시 고향을 떠난다.

"절대로 안 된다." / "데바뎀다와 아나다, 난다도 모두 출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출가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나울이 출가를 결심하고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있다. 아나울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부처님이 고향에 머무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왕실과 대중에게 널리 퍼졌고, 그로 인해 왕실과 대중의 출가가 이어지고 있었다. "출가라니!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아나울의 어머니는 단호했다. 하지만 아나울의 출가 의지도 단호했다. "좋다. 만약 밧디아왕이 출가한다면 너의 출가를 허락하겠다." 고민하던 아나울의 어머니는 조건부 허락을 한다. 밧디아왕은 정반왕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왕자였다. 아나울의 어머니는 왕이 된 그가 절대로 출가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나울은 바로 밧디아를 찾아간다. "나는 출가할 생각이 없네." 그랬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그가 출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출가 의지가 확고했던 아나울은 밧디아를 끈질기게 설득한다. 이미 아나울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던 것이다. 왜 출가해야 하는지, 그는 확신했고 그의 확신했음이 마침내 밧디아를 설득해낸다. "알았네. 나도 출가하겠네." 아나울과 밧디아는 다른 왕자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했다.

### 무빈(無貧)의 인연 공덕

"아나울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는 인연이다." (불본행집경)과 (현우경) 등에서 전하는 아나울의 과거생 이야기다. 그가 아무 부족함 없는 왕자로 태어난 것은 과거생의 공덕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경전에 따르면 과거생의 그는 나무를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나무꾼이었다.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다. 불사불(佛沙佛)의 말법시대였다. 아나울은 좁쌀 한 그릇으로 하루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결석에 나선 벽지불(辟支佛)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다 아나울의 집 앞에 쓰러졌다. "먹을 것 좀 주시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벽지불을 본 아나울은 자신도 굶주렸지만 자신보다 더 굶주린 벽지불을 위해 한 그릇 밖에 없는 좁쌀밥을 건넸다. 허기진 배를 잡고 숲으로 나간 아나울은 숲에서 발견한 시신

보시 공덕으로 왕족, 수행자 몸 받아  
설법듣다 출가 부처님 엄한 경책  
'잠자지 않겠다' 서원  
실명 불사하고 정진...천안 열려

한 구를 집에 들이게 되는데, 집에 돌아오자 그 시신은 금불상으로 변했고, 그 금불상은 손가락을 떼어 내건 발가락을 떼어내건 끊임없이 금이 되살아났다. 가난한 나무꾼 아나울은 금방 부자가 됐다. 그의 집에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절반은 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고, 절반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그는 91집 동안 이러한 과보가 계속되어 어떤 세상에서 목숨을 받아도 빈곤을 모르는 무빈의 인연을 타고 나게 된다. 보잘 것 없는 좁쌀밥 한 그릇의 공양 공덕이 이토록 지중한 인연 공덕이 되었고,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 이제 받기 어려운 수행자의 몸을 받아 만나기 어려운 범종의 법,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 육안(肉眼)을 잃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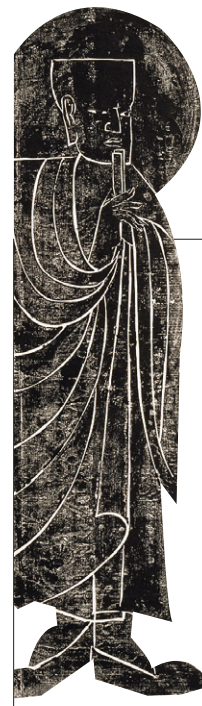
기원정사.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설법을 듣고 있던 아나울은 졸음이 밀려와 졸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이 아나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다. "아나울아 너는 어찌하여 이 법의(法義)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느냐? 벗어, 그대는 진리를 찾아 출가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 첫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놀란 아나울이 잠을 깨며 말했다. "편목 없습니다." 그토록 출가의 뜻이 컸던 아나울이었지만 수행자로서의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의 엄한 경책에 아나울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서원한다. "이 순간부터 저는 결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아나울은 그 시간 이후로 눕지도 잠을 자지도 않는다.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고행을 시작했다. 아나울이 격정된 부처님과 대중은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겠다며 잠을 자지



그림 · 김홍인

않았다. "아나울아 대중의 염려를 받아들여라. 이대로 가면 시력을 잃어 영영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부처님이 아나울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나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 맹세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 "아나울아, 고행은 좋은 것이 아니다. 게으름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행 또한 그러하다. 내가 이미 '중도'를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몸은 먹지 않으면 죽는 법이다. 육신이 음식을 막듯, 귀는 소리를, 코는 향기를, 혀는 맛을 먹이로 삼고 있다. 그리고 눈은 잠을 자야 한다. 결코 세상의 순리에 어긋나서는 안 될 것이다." / "육신의 몸이 빛을 잃는다면 이후로 저는 제 '의지'를 저의 눈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나울은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계속해 나갔다. 결국 아나울은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고 있었다. 비구들은 스스로 삼의를 기워 입어야 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나울에게는 바느질 역시 힘든 일이었다. 서둘러 바느질을 하던 아나울의 바늘에서 실이 빠지고 말았다. 아나울이 홀로 말했다. "세상에서 공덕을 지어 내 바



### 아나울 존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 분으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산스크리트어의 이름은 마니뫼다, 아니뫼다이다. 먼 과거생에서 굶주린 수행자에게 한 그릇의 밥을 보시한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가난을 모르는 인연으로 태어났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 고향을 찾아 머무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에 교화되어 데바뎀다, 밧디아, 우마리 등과 함께 출가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 부처님께 엄한 경책을 받고, 재발심하여 눕지도 자지도 않으며 수행하다 시력을 잃게 됐다. 육안을 잃은 그는 대신 마음의 눈인 천안을 얻게 되고, 천안제일(天眼第一)이라 칭송된다. 설법 등을 통한 전법보다는 설수수법하는 정진을 통해 범행을 닦는 수행자상을 보여주는 십대제자다.

(그림은 조항숙씨의 석굴암 아나울 판화)

# [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족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중사



###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경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회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철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중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 총무원

총무원장 석해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유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 문화원

문화원장 석철산

###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http://www.dwbk.net)

###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석물원 39길 24-7)

### ◆ 입종 안내 ◆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해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